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2013년 11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아라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권 연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아라

조아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21일



주 심 철학박사 이 희 영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연 희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3.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유아의 부적응 행동	10
2.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14
2) 유아의 정서지능	20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연구도구	27
3. 연구절차	31
3. 자료분석	32

IV. 연구결과 33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34
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의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36

VI. 논의 및 결론 43

1. 요약 및 논의 43
2. 결론 및 제언 46

참고문헌 48

부 록 58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25
<표 2> 연구대상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	26
<표 3>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총점 및 하위영역별 문항 수 및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28
<표 4>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검사도구의 언어적 준거 및 실례	29
<표 5> 측정변인들의 점수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34
<표 6>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정서지능 간 적률상관분석 결과	36
<표 7>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언어적 통제와 유아의 정 서지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38
<표 8> 유아의 충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 의 정서지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41

그림 목차

<그림 1>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유형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효과	39
<그림 2> 유아의 충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정서지능의 상호작용효과	42



The Moderating role of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and Child's
Maladaptive Behaviors

Jo, A-Ra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how a father's parenting efficacy, verbal control styl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s affect maladaptive behaviors, this study, at first, tried to find out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and examined whether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moderate the impact of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on maladaptive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07 children(male 115, female 92) atte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4preschools , 2 nursery places) in the city of B and their fathers.

In order to measure maladaptive behaviors children, the rating tool

for teachers modified by Ryu, Hyeongang(2007) was used. In order to measure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the scale Dohyesuk (1997) develop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home and abroad was used. To measure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the tool which An, Sanghwa(2012) produced by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e scale of emotional intelligence developed by Lee, Byungrae(1997).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the percentage were found using SPSS 18.0 program,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research problem set in this study.

First, when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ladaptive behaviors child's were examined,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and maladaptive behaviors child's, imperative language contro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withdrawal, distraction, aggression and impulse among sub-areas in maladaptive behaviors of an child, and personality language control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istraction, aggression and impulse among sub-areas in maladaptive behaviors of chil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ladaptive behavior of an child was shown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an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was shown to play moderating role in the impact of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on the total score of maladaptive behavior of an child and urge- maladaptive behaviors. That is, it was shown that the total score of maladaptive behavior and impulsive behavior of the children of the group where father's languages control level is low and emotional intelligence is high were the lowes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탄생의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경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또래, 교사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 유아가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환경맥락과의 상호작용이 대체로 조화롭고 만족스러울 경우 보다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불만족스럽거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부정적인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류수민, 2010).

유아가 주변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잘 적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김동국(1980)은 부적응 행동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과 욕구좌절이 일어나며, 사회집단의 기준에 순응하지 못하거나 사회 문화적 기대치에서 이탈된 행동이라 하였다. 박문성(2005)은 심한 갈등이나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통찰할 수 없고, 그것들이 고조되어 질 때나 급격한 환경변화로 문제사태에 적절한 적응 반응 양식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오승연(1993)은 정서적 불안정과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행동으로 과잉, 공격, 위축, 방어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영의(1995)는 유아기 부적응 행동에 대해 유아가 주위환경, 사회규범 및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

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긴장,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 하였다.

이처럼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할 때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유아기 부적응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유아기의 부적응 행동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은 비행 청소년 및 범죄자들이 어릴 적 환경과의 마찰로 인한 부적응을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기 때 문제행동을 보인 50%이상의 유아가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정신병리학적 증세나 범죄를 일으켰다(Koot, Verhulst & Boomsma, 1997). 이에 류수민(2007)은 유아의 부적응행동 현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Wolfe, Scott와 Wekerle(2003)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유아기에 해결하지 않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해결할 경우 단순한 행동수정은 가능할지라도 이미 습관화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는 유아기에 해결하는 것 보다 미흡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의 부적응 행동을 중재하는 것은 이후 건강한 성장발달에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데, 다른 긍정적 사회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부적응 행동 역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많은 국내연구들(강경희, 2007; 김현정, 2000; 류현강, 2007; 박문성, 2005; 홍기영, 2003)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환경맥락 요인과 개인 내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환경 맥락적 요인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주로 유아 주변의 인간관계, 가정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대인간 환경

맥락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아의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주 양육자인 부모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는데(강경희, 2007; 권일선, 1994; 류현강, 2007; 유영의, 1995; 유우영, 1998; 이숙희, 김숙령, 1996), Campbell(1995)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비 일관적 훈육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Stocker(2000)는 부모의 감독부재 및 어머니·자녀간 적대성이 청소년의 공격성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유영의(1995)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 및 좌절경험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향으로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Peterson(1980)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며, 아동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과 태도 및 가치관을 적용시킨다고 하며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다고 하여도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Parke와 Tinsley(1987)는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론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생물학적 이유보다는 ‘양친의 존재’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자녀 양육 및 참여에 있어 부모 공동의 역할 및 책임이 가족 체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하였다.

2013년 7월 여성의 취업 인구는 1,566,000명에 이른다. 이것은 지난 2004

년 7월 여성 취업 인구 949,200명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13). 이렇듯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체계 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아버지 스스로도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가정이 늘어났다.

이에 최근 들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지선(2004)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공격행동, 위축행동, 방어행동의 부적응 행동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아버지가 비합리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경우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Gottman, Kalz와 Hooven(1991)은 자녀에 대한 부모양육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좀 더 복잡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양육행동 보다 세분화된 행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양육에서 유아에 대한 언어통제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Martinez(1987)는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인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중재 수단으로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라고 하였다. 이영화(1998)에 따르면 유아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언어로 전달받게 되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관계 위에 또 다른 관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과 부모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통제는 그들 자녀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ernstein(1971)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 언어

통제를 설정하고, 특정한 언어적 통제가 사용되는 가정의 역할 체계 및 의사소통 체계와 사회적통제방식과 유아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Lerner(1998)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명령적이고 설명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 모두 지위적 언어통제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혜숙, 1997; 이경희, 1993; 임규란, 2001; 장준희, 2006).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은 어머니의 그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이경희, 1993; 임규란, 2001), 예의범절이나 생활지도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보다 더 많은 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언어체계를 가지고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자녀에게 사용하는 부모의 다양한 언어체계와 통제유형은 유아의 정서, 사회적 능력 및 부적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김선흥, 2000; 장석영, 이지현, 2007; 장영숙, 강경석, 허은진, 2003)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 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대부분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유아의 개인내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개인내 요인으로 주로 성(류현강, 2007; 안선희, 2002), 연령(Lapouse & Mank, 1958; 김인숙, 2003, 재인용), 기질(강민정, 1997; 임말자, 최경순, 2003; Slee, 1986)과 정서지능(김순정, 2000; 문미옥, 임미혜, 2000) 등을 살펴보았다.

최근 사회적 행동에서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서지능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정서지능이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감정이 사고를 촉진시키는 조건에서 그러한 감정에 접근하거나 감정을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그리고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Mayer & Salovey, 1996).

유아의 개인내 요인인 정서지능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문미옥과 임미혜(2000)는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정서조절을 잘 하는 이른바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비공격적이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하여 친구나 교사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욕구좌절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문용린(1997)도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성인의 적응 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의 대처 능력과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대인간 요인인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및 개인내 요인으로서 정서지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아 개인의 발달이 유아를 둘러싼 맥락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역동적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Lerner(1998)의 체계적 관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같은 대인간 맥락과 유아의 정서지능과 같은 개인내 요인의 영향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 개인의 적응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양육 행동과 유아 개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Bate와 Dettit(2007)의 제언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함께 고려해

불 필요가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부족으로 아버지 언어통제 유형과 같은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의 정서지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hang 등(2003)은 유아의 정서조절이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였고, 권연희(2011)에 따르면 어머니의 거부·방임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통해 공격성 행동문제에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권연희(2013)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위축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조절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비록 이 연구결과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유아의 정서조절과 같은 정서능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결과이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언어적 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아의 정서지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관련된 대인간 요인으로서 부모의 영향은 대부분 어머니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대인간 요인으로서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개인내 요인으로서 유아의 정서지능이 이들의 부적응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아버지 양육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부적응 유아에 대한 중재 계획시 아버지의 역할 및 유아 개인의 정서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부적응 유아를 위한 실제적 중재 방안 마련에 기초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정서지능이 조절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부적응 행동

부적응 행동이란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환경과 또래관계에서 부적절하게 일어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 행동이라 함은 Burks(1996), Behar와 Stringfield(1974), Achenbach(1978), Quay(1972)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구성된 문항을 류현강(2007)이 수정한 교사용 평정도구를 사용하여 얻어진 점수를 의미한다.

나.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은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에서 자녀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라 함은 Bernstein(1971)과 Cook-Gumperz(1973)의 연구 및 국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혜숙(1997)이 제작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점수를 의미한다.

다. 정서지능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 긍정적으로 맺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이라 함은 Slovey와 Mayer(1997)의 모형에 기초하여 이병래(1997)가 제작한 척도를 안상화(2011)가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얻어진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의 부적응 행동

1) 부적응 행동의 개념

부적응 행동이란 사회규범 및 주위환경에 동화되지 못하여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안, 긴장 등의 심리적 요인이 외적인 형태인 공격적 행동, 소극적 태도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영의(1995)에 의하면 부적응 행동은 유아가 주위환경, 사회규범 및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긴장,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 하였다.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생·물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교육심리학적 관점이 있으며, 각 관점이 취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의 부적응 행동은 개인의 정신 구조인 본능, 자아, 초자아의 역동적인 체계가 갈등을 일으킬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한옥(1990)의 연구에서의 행동주의적 관점은 부적응 행동을 유아의 심리적인 과정에서 오는 병리현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학습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는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정적강화나 부적강화에 의해 부적응 행동이 유지되고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생·물리학적 관점에서의 모든 행동이란 생리적 기초 아래 형성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부적응행동과 같은 이상행동은 유전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이 환경적인 접촉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며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강민정, 1993).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부적응 행동은 유아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부적절한 사회화 현상이 유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본다(김인숙, 2003). 예를 들어 사회의 규범이 너무 높거나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사회자체가 수정한 규범이 개인의 규범을 수정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형성되는 격차로 인해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다(Telford & Sawrey, 1972).

마지막으로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유아의 잠재력은 초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자아개념, 욕구, 현실적인 긴장감을 다루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구 수준에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고 이것이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양하고 측정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김동극(1980)에 의하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항상 갈등과 욕구 좌절이 일어나며, 사회집단의 기준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회 문화적 기대치에서 이탈된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오승연(1993)은 정서적 불안정과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 원만한 인관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행동으로 과잉, 공격, 위축, 방어 행동을 부적응이라고 하였다. Reinbert(1976)는 부적응 행동이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의 관계나 성인 및 또래간의 관계가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aring과 Phillips(1962)는 부적응 행동 유아는 지적 발달

과 신체적 발달은 정상이지만 학습능력이 부족한 유아,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라고 정의하였다(김인숙, 2003, 재인용). Hewett(1971)는 사회화에 실패하여 연령, 성별에 따라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양식으로부터 이탈된 행동을 부적응행동이라 하였다(강민정, 1997, 재인용).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부적응 행동이란 유아가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적절하고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나타나는 행동이 내면화 또는 외면화되어 심리적,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 위축, 의존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내면화된 부적응 행동, 산만, 공격, 충동과 같은 행동을 외면화된 부적응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부적응 행동의 원인

부적응 행동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학자들마다 부적응 행동을 정의하는 견해가 다르고 인식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으로 이러한 부적응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성을 지녔는지 혹은 어떤 요인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촉진체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생리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리학적 요인은 유전적, 신경학적 요인들의 복합적 적용을 말하며 생리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생리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아의 기질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Lapouse와 Monk(1958)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적응 행동을 적게 나타내었으며 싸움, 분노 등

과 같은 극단적 행동도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부적응 행동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자주 유아교육기관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였으며, 남아는 과잉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는 두려움과 걱정을 더 많이 보였다. Peterson(1961)의 경우, 남녀의 성별 특성에서 남아는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여아는 내향적인 성격문제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김인숙, 2003, 재인용).

둘째,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유아 주변의 인간관계, 가정환경, 사회 환경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유아기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거절, 거부, 일관성 없는 상벌 등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선희, 2008).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으며(권일선, 1994; 서동미, 1996), 부정적 양육 태도와 부적응 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Fagan, 1990; Martin, 1981; Sroufe, 1983)되고 있다. 유영의(1995)에 따르면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과도한 경쟁, 학업 실패로 인한 좌절 등은 유아로 하여금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쉽고 이것이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론들의 포괄적인 의미를 수용하여 부적응 행동을 환경과 또래관계에서 부적절하게 일어나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불안, 위축, 산만, 공격, 충동의 준거로 나누어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가. 언어통제유형의 개념

Martinez(1987)는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인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중재 수단으로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재이다. 또한 성인에게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동 양육 시 사용하는 언어 유형은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며 아동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 기재 중 언어는 가장 흔히 사용되어 진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이해능력은 떨어지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능력과 대화 형태를 습득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 그들의 언어에서 느껴지는 감정, 느낌, 생각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이영화(1998)에 따르면 아동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언어로 전달받게 되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관계 위에 또 다른 관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과 부모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역할은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때 사용되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진성, 2006).

Bernstein(1971)은 아동의 언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 언어통제를 설정하고 특정한 사회 언어적 통제가 사용되는 가정의 역할체계 및 의사소통체계와 사회통제방식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통제의 양육방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고, 지위지향적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가 역할 기대에 의해 통제되어지며, 개인의 의도나 동기에 대한 언어적 탐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지 못하게 되며,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다. 그러나 인성지향적 가정의 역할체계는 각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지위나 역할 기대보다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Bernstein(1971)은 부모와 아동간의 사회 언어적 통제 방식을 어법(linguistic codes)이라는 언어유형으로 나누어 정교한 어법(elaborated code)와 제한된 어법(restricted code)로 구분하였다. 정교한 어법은 정확한 문법적 어순과 구분을 사용하여 명백하고도 논리적인 강조를 하며, 개인의 감정 표현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제한된 어법의 경우 상례적이고 한정적이며 압축적이고, 문장의 형태가 짧고 단순하며 문법적으로 불완전하며, 대화 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는 이러한 두 언어모형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제 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설명이나 법칙을 명령적 통제(imperative control)유형, 지위적 통제(positive control)유형, 인성적 통제(personal control)유형으로 구분하였다. Gumperz(1973)는 이러한 분류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 언어자료를 수집하여 부모가 유아에게 사용하는 세 가지 언어통제유형의 세부적인 하위기준을 마련하였다. Bernstein(1971)과 Gumperz(1973)의 정의에 입각한 언어통제유형의 하위개념인 명령적 통제유형, 지위적 통제유

형, 인성적 통제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령적 통제유형은 주로 제한된 어법이 사용되며 자녀에게 역할재량권이 거의 주의되지 않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 시에 통제의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이 없어 배척하거나 철회, 수용 등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의도와 요구 등이 무시된 채 부모가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철회하며, 체벌이나 위협과 명령 등으로 자녀에게 지시하고 이에 대해 복종과 수용을 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자꾸 그러면 때려줄 거야.”, “다시 또 그런 욕하면 혼내줄 거야.”, “신발이 그게 뭐니? 똑바로 해놓고 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위적 통제유형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자녀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학습과정에서 유아가 자신과 유사한 특성이나 또는 보편적 특성을 가진 타자와 관련 짓도록 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한다.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주된 근거는 사회의 보편적 또는 특수한 지위에 내재한 규범과 규칙이 되며, 예를 들면, “욕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거야.”, “너 왜 손님 앞에서 철없이 그러니? 의젓해야지.”, “인사를 잘해야 착한 사람이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적 통제유형은 자녀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동기, 의도,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 지향적, 부모 지향적, 타인 지향적 언어 통제 등이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자녀의 개별적 의도, 자녀가 타인과의 맥락 속에서 규칙을 배울 수 있도록 자녀 스스로 이러한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시된다. 유아는 자신의 형식적 지위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진 규칙에 의해 규칙을 선택하므로 인성적 통제 유형은 유아 스스로의 성취적 통제이다. 예를 들면, “손이 더러우면 네 손에 있는 더러운 병균도 같이 먹게 될 텐데.”, “네가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겠다.”, “싫더라도 아빠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등을 들 수 있다.

이경희와 정옥분(1994)의 연구에서는 지위적 가족은 연령, 성, 세대에 의한 지위에 따라 역할과 책임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아동에게 부여하는 역할의 선택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언어표현도 지위와 규칙에 따르게 되므로 가족 간의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이 어렵게 된다. 즉 아동의 사회화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의도나 동기에 대한 언어적 탐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인성적 가정의 역할체계는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른 다양성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있는 사회적 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아동의 관점, 특성, 의도를 중요시하는 정교한 어법을 사용하며, 부모 및 성인과의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성 지향적 가정의 부모는 아동을 개개인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모가 아동의 사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아동 역시 부모를 사회화 시킬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와의 의사소통 형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Gordon(1975)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형태를 ‘너-메시지’와 ‘나-메시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너-메시지’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령, 경고, 설교 등의 성격을 띠며 자녀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또는 자녀에게 자기는 얼마나 나쁜 아이인가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나-메시지’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입장 및 느낌을 알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자녀 편에서도 자신의 정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장영숙, 강경석, 허은진, 2003, 재인용).

본 연구에 사용되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란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 통제시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에서 자녀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하며, 언어통제 유형의 하위개념은 Bernstein(1971)과 Gumperz(1973)

의 정의에 근거하여 명령적 언어통제유형, 지위적 언어통제유형,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나.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부적응 행동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도혜숙(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보다 인성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유아의 친사회적 사고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허정목(2005)은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을 자주 사용할 때 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짐을 입증하였다. 김리은(1996)은 유아의 부적응은 명령적 언어통제유형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지위적, 인성적 언어통제유형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영화(2000)은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한 유아는 과잉행동과 위축, 우울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김선희(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을 명령적, 지위적 언어통제유형보다 더 자주 사용할수록 정서의 하위요인 영역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송수원(2002)은 그의 연구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는 남녀 아동 모두에게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하며, 인성적 통제가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이해를 돕는 언어를 사용할 때, 아동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선택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김여가(1997)은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경우 아동이 모두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으로 지각

했을 때 아동의 공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고영자(2000)는 어머니가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하는 남녀 유아가 유치원에 더 잘 적응하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유치원 적응 하위 요소 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영향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져 왔다(김선홍, 2001; 박혜경, 2000, 이현이, 200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아동의 감정지능 차이를 분석한 이종현(2000)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아의 정서지능

가. 정서지능의 개념

전통적 심리학에서는 사고와 감정이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이 데 따라 감정은 혼란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감성이나 소고 등은 감정적 두뇌와 이성적 두뇌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육체와 정신 또는 이성과 감정이 분리된다는 이론을 반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능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는 지능과 감정이라는 진부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장영숙, 강경석, 허은진, 2003).

Mayer와 Salovey(1990)는 18세기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세 가지 부분 즉 인지, 정의, 동기화로 나누어 생각했다. 인지영역은 기억, 추론, 판단 및 추상적 사고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며 심리학자들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인지 영역이 기능하는 정도를 지능이라고 보았다. 정서는 흔히 정신 기능의 정의적 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에 속해 있었으며 여기에는 정서 자체와 기분, 평가, 기타, 다른 상태의 감정이 포함된다. 또한 그들은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계획력, 창의력, 집중, 자기 동기화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성숙된 정서 상태는 장기의 즐거움을 견디며, 자신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살피는 친화력과 사회화와 가까워지려는 마음 상태로서 자신의 정서를 통솔하고 조정, 처리하여 처음에 목표한 바를 이루어 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능의 개념을 최초로 착안하였던 Thorndike(1937)는 사회지능이

다른 유형의 지능과 다르다고 보았으며, 사회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내부 상태, 동기, 행동을 인식하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은숙, 2001, 재인용).

Gardner(1983)는 인간의 지능을 다차원으로 보고 인간의 지능에는 신체 운동 지능, 대내 지능,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공간 지능들과 같은 일곱 가지 서로 다른 다중 지능 이론을 제시하였다. 다중 지능 이론에서 7가지 지능 중에 개인 지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지능을 대인지능과 대내지능으로 나누었다. 정서지능은 이 개인지능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대인 관계 지능을 지도성, 협동심, 갈등 해결 능력, 사회의 인지 분석 능력,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요약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능으로 보았다.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점검하고 변별하며,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유도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리며, 정서지능은 일종의 사회 지능이라고 보았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좌절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 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충동의 통제나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며, 타인에 대해 동감 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소로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기술을 제안하였다.

Santrock(2001)은 정서는 심리 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목표, 노력, 정서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사회 과정을 조절하고 그것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양승희(2003)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낮은 유하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상황

을 더욱 악화시켜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서 지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생활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서지능은 사고 능력, 기억력, 주의력 등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거나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서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표현된 능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서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Mayer와 Salovey(1996)는 정서지능을 정서를 인식하고 사고를 돕기 위해서 정서에 접근하고 생성시키는 능력,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적, 지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능력, 정서적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정서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 자신의 감정 조절하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하기,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 타인의 감정 다루기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 긍정적으로 맺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ayer와 Salovey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서지능을 자기인식 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타인조절능력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나.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Goleman(1995)는 정서지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할 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좌절하기 보다는 용기와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해주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미룰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학업과 또래 관계 전반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우수경(2002)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동시에 유아의 정서지능도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세원(1998)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능력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타인의 조망을 파악하는 기술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erry & Bussy, 1984; Denham, 1986)도 있다.

임미혜(2005)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정적이고 쾌활하며 책임감 및 동정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자신의 정서적인 표현을 적절히 하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까지도 편하게 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부예숙(2011)의 연구에서도 남아와 여아 모두 자기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과 타인정서조절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의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황혜정과 김경희(1999)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안나(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사회

적 능력,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곽윤정(1997)과 왕정희(2001)은 정서지능이 사회적 능력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으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기술도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현숙(2006)은 유아의 정서지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감정조망 수용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가 부적응 행동이 적게 나타나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유아의 정서지능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중재효과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4곳, 어린이집 2곳)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207명(남아 115명, 여아 92명)과 그들의 아버지 20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유아의 연령은 평균 5세 8개월($SD=7.81$)로 만4세가 68.6%(142명), 만5세가 31.4%(65명)로 만5세가 만4세보다 더 많았다. 성별은 남아가 55.6%, 여아가 44.4%로 남아가 약간 더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40.1%, 둘째가 30.4%로 순이었으며, 형제 수는 2명이 59.4%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특성

($N=207$)

변인	내용	빈도(%)
연령	만4세	142(68.6)
	만5세	65(31.4)
성별	남아	115(55.6)
	여아	92(44.4)
출생순위	외동아	54(24.6)
	첫째	83(40.1)
	둘째	63(30.4)
	셋째이상	10(4.8)
형제 수	1명	54(26.1)
	2명	123(59.2)

3명	29(14.0)
4명 이상	1(0.5)

연구 대상 유아의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버지는 평균연령 40세($SD=11.84$)로 30대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6.5%로 그 뒤를 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상(56.5%)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계의 월평균 수입은 100-199만원 12.6%, 200-299만원 30.9%, 300-399만원 25.1%, 400-499만원 10.1%, 500만원이상 15.0%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2> 연구대상 아버지의 특성

(N=207)

변인	내용	빈도(%)
연령	20대	4(2)
	30대	119(57.6)
	40대 이상	77(37)
	무응답	7(3.4)
	고졸 이하	30(14.5)
학력	초대졸	54(26.1)
	대졸	107(51.7)
	대학원 이상	10(4.8)
	무응답	6(2.9)
	100만원 미만	2(1.0)
월 평균 수입	100~199만원	26(12.6)
	200~299만원	64(30.9)
	300~399만원	52(25.1)
	400~499만원	21(10.1)
	500만원 이상	31(15.0)
	무응답	11(5.3)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였다. 연구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부적응 행동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urks(1996), Behar와 Stringfield(1974), Achenbach(1978), Quay(1972)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구성된 문항을 류현강(2007)이 수정한 교사용 평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불안(8문항), 위축(8문항), 산만(8문항), 공격(8문항), 충동(5문항)¹⁾의 5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진 총 37문항으로 유아의 담임교사는 평소 유아의 행동에 대한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유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적응행동정도가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총점 및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불안 .89, 위축 .93, 산만 .94, 공격 .95, 충동 .96이며, 부적응 행동 총

1) 각각의 하위요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안: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사소한 일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위축: 주변 환경과의 접촉에서 움츠러들고 지나친 불안감, 수줍음을 보이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고립되어 있는 경우.

산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행동을 보이거나 불필요하게 하는 행동, 소란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

공격: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 대하여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하거나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경우.

충동: 어떤 상황에서 통제를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및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점에 대한 신뢰도는 .97이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의 문항 수 및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다.

<표 3>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총점 및 하위영역별 문항 수 및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불안	8	1, 2, 3, 4, 5, 6, 7, 8	.89
위축	8	9, 10, 11, 12, 13, 14, 15, 16	.93
산만	8	17, 18, 19, 20, 21, 22, 23, 24	.94
공격	8	25, 26, 27, 28, 29, 30, 31, 32	.95
충동	5	33, 34, 35, 36, 37	.96
계	37		.97

2)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1971)과 Cook-Gumperz(1973)의 연구 및 국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혜숙(1997)의 척도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결과, 4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평소 아버지와 유아 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응답하기 어렵다고 하여²⁾(예, 아이가 밖에서 돌아오는 길에

2) 제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밖에서 돌아오는 길에 꽃을 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꺾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 자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혼자 처음으로 가는 날 안가겠다고 때를 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어머니께서 자녀와 무슨 약속을(선물을 사준다면지, 어디에 데려간다면지.) 하시고는 지키지 않아서, 자녀가 화를 내고 어머니와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아침에 자녀가 자신이 입고 싶은 옷만 입고 유치원(어린이집)에 가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꽃을 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꺾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명령적 통제 21문항, 지위적 통제 21문항, 인성적 통제 21문항으로 총 63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각 상황을 읽고 그러한 상황에서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한 정도를 근거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5점)’의 5점 평정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언어통제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하위영역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명령적 언어통제 .91, 지위적 언어통제 .88, 인성적 언어통제 .92로 나타났다. 언어통제유형 질문지의 조작적 정의와 문항번호 및 신뢰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의 하위영역별 조작적 정의와 문항번호 및 신뢰도 계수

하위영역	조작적 정의와 문항번호	신뢰도
명령적 통제 (21)	행동 통제 시 유아에게 부여되는 역할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부모의 명령, 언어적 별, 신체적 별, 자극의 제거, 간접적 별 등이 포함된다(예, 다시 또 그런 욱하면 혼내줄거야, 신발이 그게 뭐지, 똑바로 해놓고 와). (문항번호: 2, 4, 9, 10, 13, 17, 20, 24, 25, 28, 31, 36, 38, 40, 45, 47, 50, 52, 59, 60, 61)	.92
지위적 통제 (21)	행동 통제 시 유아에게 부과되는 역할 재량권이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통제로써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예, 너 왜 손님 앞에서 철없이 그러니, 의젓해야지, 욱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문항번호: 1, 5, 8, 11, 15, 16, 19, 23, 26, 29, 33)	.88

	35. 37. 42. 43. 47. 49. 53. 55. 58. 62)	
인성적 통제 (21)	행동 통제 시 유아의 역할 재량권이 동기, 의도,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 지향적, 부모 지향적, 타인 지향적 언어 통제 등이 포함된다(예, 손이 더러우면 네 손에 있는 더러운 병균도 같이 먹게 될텐데, 싫더라도 아빠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문항번호: 3. 6. 7. 12. 14. 18. 21. 22. 27. 30. 32. 34. 39. 41. 44. 48. 51. 54. 57. 59. 63)	.92

3)유아의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1997)의 정서지능에 대한 수정 모형에 기초하여 이병래(1997)가 제작한 유아의 정서지능 질문지를 안상화(2011)의 연구에서 6점 척도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은 자기인식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타인조절능력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31문항의 교사용 질문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평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과 조절을 통한 정서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총점을 사용하였다. 답임교사는 각 문항을 읽고 유아의 평소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평정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정서지능의 총점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6이다.

3. 연구절차

가.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2013년 4월 24일~5월 20일에 걸쳐 각 연구변인별 측정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 및 경남지역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아버지 30명과 현직 유아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에 응답한 뒤, 응답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4가지 상황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아서 응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부산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4곳, 어린이집 2곳)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480명과 그들의 아버지 480명, 담임교사 17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6일 걸쳐 실시하였다.

해당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반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480부와 교사용 질문지 480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 배부 2주 후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아버지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는 총 224부가 회수되어 46.6%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

된 질문지 중 응답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17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총 207부의 질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정도는 평정 교육기관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으며, 총 17명의 교사가 평정자로 참여하였다. 평정에 참여한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이 평균 34세로 20대가 70.5%로 가장 많았다. 교사의 학력은 초대졸이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사의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12.6%, 3년 이상 5년 미만이 29.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7.3%를 차지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의 정서지능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분석을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총점과 하위영역별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정서지능의 평균점수에 대해 $\pm 1SD$ 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을 구분한 후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그래프화 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부적응 행동,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점수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총점 평균 2.32로 1-5점의 가능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의 부적응 행동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적응 행동 문항 평균은 불안이 2.40, 위축이 2.39, 산만이 2.48, 공격이 2.19, 충동이 2.07로 하위영역 중에서 산만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의 문항별 평균은 명령적 언어통제 2.28, 지위적 언어통제 3.01, 인성적 언어통제 2.76으로 지위적 언어통제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지능의 총점 평균은 4.18로 1-6점의 가능 점수 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므로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정서지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t = .728$, $n.s$) 이후 상관 및 회귀분석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표 5> 측정변인들의 점수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N=207)

변인		가능 점수 범위	실제 점수 범위	M	SD
유아의 부적응 행동	총 점	1.00~5.00	1.00~4.41	2.32	.72
	불안	1.00~5.00	1.00~4.63	2.40	.78
	위축	1.00~5.00	1.00~4.75	2.39	.84
	산만	1.00~5.00	1.00~5.00	2.48	.87
	공격	1.00~5.00	1.00~4.63	2.19	.84
	충동	1.00~5.00	1.00~5.00	2.07	.89
	총 점	1.00~5.00	1.00~4.41	2.32	.7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언어통제	1.00~5.00	1.00~4.19	2.28	.67
	지위적 언어통제	1.00~5.00	1.00~4.52	3.01	.58
	인성적 언어통제	1.00~5.00	1.00~4.57	2.76	.70
유아의 정서지능		1.00~6.00	2.00~5.55	4.18	.70

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유아의 부적응 행동 및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6>과 같다.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명령적 언어통제의 경우,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영역 중 위축과 산만, 공격, 충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각 $r=.15, p<.05$; $r=.20, p<.01$; $r=.18, p<.01$; $r=.23, p<.01$). 지위적 언어통제의 경우,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충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17, p<.05$). 인성적 언어통제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 영역 중 산만, 공격, 충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각 $r=.18, p<.05$; $r=.21, p<.01$;

$r=.21, p<.01$).

즉,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중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자주 사용할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위축, 산만, 공격, 충동 부적응 행동이 더 자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중 지위적 언어통제 유형을 자주 사용할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충동 부적응 행동이 자주 보이며, 아버지가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을 더 자주 사용할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영역 중 산만, 공격, 충동 부적응 행동이 더 자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불안, 위축, 산만, 공격, 충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각 $r=-.17, p<.01$; $r=-.19, p<.01$; $r=-.28, p<.001$; $r=-.24, p<.001$; $r=-.18, p<.01$). 즉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유아의 정서지능 간 적률상관분석 결과**

(N=207)

변 인	(1)	(2)	(3)	(4)	(5)	(6)	(7)	(8)	(9)
(1)	1.0								
(2)	.85***	1.0							
(3)	.85***	.86***	1.0						
(4)	.89***	.66***	.65***	1.0					
(5)	.86***	.55***	.56***	.75***	1.0				
(6)	.84***	.55***	.54***	.71***	.89***	1.0			
(7)	.20*	.12	.15*	.20**	.18*	.23**	1.0		
(8)	.14*	.09	.10	.13	.13	.17*	.66***	1.0	
(9)	.19*	.11	.12	.18*	.21**	.21**	.46***	.75***	1.0
(10)	-.25***	-.17*	-.19*	-.28***	-.24***	-.81***	-.22**	-.13	-.01

(1)부적응 행동 총점 (2)불안 (3)위축 (4)산만 (5)공격 (6)충동
(7)명령적 언어통제 (8)지위적 언어통제 (9)인성적 언어통제
(10)정서지능

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지능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을 조절변인이라고 보고, 이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아의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즉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

적응 행동 간의 관계가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총점 및 하위영역별로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아의 부적응행동 총점과 충동 하위영역의 경우에만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회귀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행동 총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유아의 부적응행동 총점에 대해 회귀분석의 1단계에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 변인을, 2단계에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모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차화점수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는 .852~.969, VIF 지수는 1.040~1.174의 분포로 허용 가능한 정도이므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정서지능이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단계 모델에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beta=.19, p<.05$) 및 인성적 언어통제($\beta=.26, p<.05$), 유아의 정서지능($\beta=-.35, p<.001$)의 주효과,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정서지능($\beta=.32, p<.01$)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총 18%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부정적 명령, 언어적 벌 등의 방법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가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7>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207)

변 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16	.15	.20	.19*
아버지의 지위적 명령통제	-.21	-.17	-.25	-.18
아버지의 인성적 명령통제	.25	.25*	.26	.26*
유아의 정서지능	-.25	-.24*	-.36	-.35***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 정서지능			.44	.32**
아버지의 지위적 명령통제 × 정서지능			-.09	-.05
아버지의 인성적 명령통제 × 정서지능			.00	.00
R^2	.11		.18	
ΔR^2			.07	
F	6.38***		6.31***	

* $p < .05$, ** $p < .01$ *** $p < .001$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유아의 정서지능의 상, 하 집단 별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수준과 관계없이 유아의 정서지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높고($M=2.60$) 낮음($M=2.42$)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37$ n.s.). 하지

만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수준이 높은 유아($M=2.44$)가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수준이 낮은 유아($M=1.67$)보다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t=-1.92, p<.05$). 즉,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통제의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위협적이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덜 보이고 유아 자신의 정서지능이 높은 수준일 때 유아의 부적응행동 수준은 가장 낮았다.



[그림 1]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유형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효과

나.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충동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하위변인 중 충동에 대해 회귀분석의 1단계에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 변인을, 2단계에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모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차화점수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는 .539~.789, VIF 지수는 1.267~1.857의 분포로 허용 가능한 정도이므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충동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정서지능이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단계 모델에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beta=.21, p<.05$), 인성적 언어통제($\beta=.24, p<.05$)의 주효과,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정서지능($\beta=.25, p<.05$)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아의 충동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총 14%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을 많이 보일수록 그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충동행동을 많이 보이며, 이는 특히 자신의 정서지능과 상호작용하며, 이들의 관계가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유아의 충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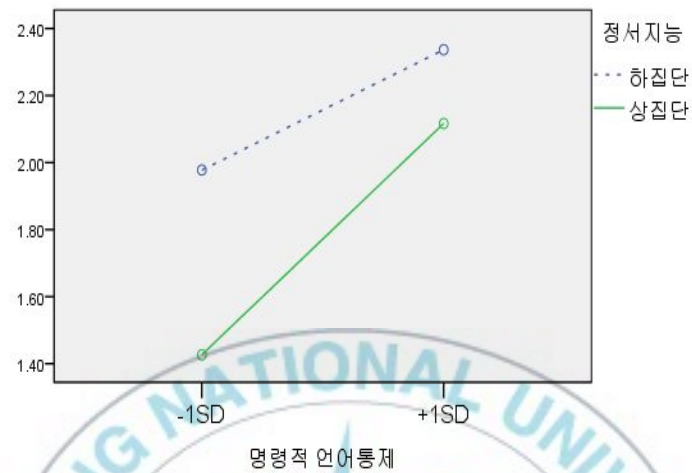
(N=200)

변 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 통제	.24	.18*	.28	.21*
아버지의 지위적 언어 통제	-.22	-.14	-.26	-.17
아버지의 인성적 언어 통제	.30	.23*	.30	.24*
유아의 정서지능	-.20	-.16*	-.30	-.24**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 통제× 정서지능			.42	.25*
아버지의 지위적 언어 통제× 정서지능			-.15	-.07
아버지의 인성적 언어 통제× 정서지능			.11	.06
R^2	.10		.14	
ΔR^2			.04	
F	5.29***		4.49***	

* $p<.05$, ** $p<.01$ *** $p<.001$

유아의 충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유아의 정서지능의 상, 하 집단 별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유아의 충동 부적응 행동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가 높고($M=1.98$) 낮음($M=1.89$)에 따라 충동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t=-1.98$, $n.s.$)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가 높은 유아($M=2.12$)가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수준이 낮은 유아($M=1.43$)보다 충동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t=-2.76$, $p<.05$). 즉,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령적인 언어로 통제하는 아버지의 유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충동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정서지능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즉, 아버지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적게 사용하고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가 가장 낮은 충동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유아의 충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정서지능의 상호작용효과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의 정서지능이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및 논의

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가 언어통제유형 중 명령적 언어통제를 자주 사용할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위축, 산만, 공격, 충동 부적응 행동을 더 자주 보이며, 지위적 언어통제를 자주 사용할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충동 부적응 행동을 자주 보이며, 아버지가 인성적 언어통제를 더 자주 사용할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영역 중 산만, 공격, 충동 부적응 행동이 더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통

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김리은, 1996; 김선홍, 2000; 김여가, 1997; 허정목, 200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명령적 언어통제와 지위적 언어통제에 비해 인성적 언어통제를 자주 사용할 경우 자녀에게 더 많은 역할 재량권을 부여하여 대부분의 결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따르는 결정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성적 언어통제에 익숙한 유아가 통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산만, 공격, 충동 부적응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 행동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수준이 높은 유아가 정서지능수준이 낮은 유아에 비해 부적응 행동을 적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가 부적응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부예숙, 2011; 우수경, 2002; 이세원, 1998; 임미혜, 2005; 황혜정, 김경희, 1999; 정안나, 2008; Goleman, 1995; Perry & Bussy, 1884; Danham, 1986)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Gloeman(1995)은 정서지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할 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좌절하기 보다는 용기와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해주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미룰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학업과 또래 관계 전반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친사회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므로 교사가 인식한 부적응 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의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지능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부정적 명령, 언어적 벌 등 명령적 언어통제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가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명령적 언어통제는 이들의 부적응 행동, 구체적으로 충동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지만, 이러한 관계는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과 상호작용 하여 정서지능 수준이 낮은 경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관계없이 높은 부적응 행동 총점 및 충동 행동을 보였다. 반면, 유아의 정서지능 수준이 높은 경우 명령적 언어통제를 덜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가 가장 적은 부적응 행동, 구체적으로 충동 행동을 보였다.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성에 대한 정서지능의 중재효과를 살펴볼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해 볼 수는 없으나, 노미나와 권연희(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낮은 통제행동 및 높은 격려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Conway(2005)는 유아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Chang 등(2003), 권연희(2011)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부적절한 거부·방임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낮추고 그 결과 그들의 자녀가 공격성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할 때 자

녀에 대한 통제의 이유에 대해 설명 없이 위협적이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덜 보일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향상되고 그 결과 아버지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덜 사용하고 정서지능수준이 높은 유아가 기관에서의 부적응 행동 특히 충동 부적응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언어적 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의 설명력은 총점과 하위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18%의 설명력을 보여 별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비록 아버지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의미로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버지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 외 다양한 변인들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명령적 언어통제의 경우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하위요인 중 위축, 산만, 공격, 충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지위적 언어통제의 경우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하위요인 중 충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인성적 언어통제의 경우 유아의 부적응 행동의 하위요인 중 산만, 공격, 충

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부적응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부적응행동 총점과 충동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명령적 언어통제 수준이 낮고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의 유아가 부적응행동 총점 및 충동 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 교사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정서조절을 평정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동일한 평정자의 편견이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또래 평가, 직접 관찰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만을 고려하였지만,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총 설명력이 10%~18%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지역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질문지가 아님으로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문지를 통하여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07).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지도 방법.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민정 (1997).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유치원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자 (2000).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윤정 (1999).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연희 (2011).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어머니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27-940.
- 권연희 (2013).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215-238.
- 권일선 (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극 (1980). 특수교육. 서울: 배영사.
- 김리은 (1996).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흥 (2000).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 (2000).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여가 (1997). 부모의 통제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2003). 한부모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 (2000). 유아교육기관 부적응 아동과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미나, 권연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4), 31-41.
- 도혜숙 (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수민 (2010).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교사의 유아 부적응 행동과 지도 실제에 대한 인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현강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미옥, 임미혜 (2000). 유아의 EQ증진을 위한 정서교육 활동. 서울: 학지사.
- 문용린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박문성 (2005). 유아기 아동의 부적응 실태 및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경 (2000).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부예숙 (2012).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

- 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동미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수원 (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상화 (2011). 다문화 그림책을 활용한 동시짓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 능력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선희 (2002).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유치원 적응. 미래유아학회지, 9(3), 163-180.
- 양승희 (2003). 정서지능 수준에 따른 유머 활동 경험이 유아의 창의성과 유머 이해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승연 (1993). 초등학교 아동의 충동성과 부적응행동 및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수경 (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영의 (1995). 부적응 행동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 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우영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세원 (1998).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

- 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희, 김숙령 (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희, 정옥분 (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
한가정학회지, 32(5), 69-96.
- 이영화 (1998).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과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숙 (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유형이 정
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 이종현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아동의 감성
지능 차이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성 (2006).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 및 부모간 일치도에 따른 유아
의 정서지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한옥 (1990). 그림 분석을 통한 정서부적응아의 심리적 특성 연구. 성
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숙 (2006).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지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이현이 (2001).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우석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규란 (2001). 유아에 대한 부와 모의 언어통제 유형 비교. 가톨릭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말자, 최경순 (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자극과 유아교육 기관 적응과의 관계. *아동교육연구*, 23(1), 189-207.
- 임미혜 (2005).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지능에 따른 또래간 인기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석경, 이지현 (2007).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양육참여도 및 그에 따른 유아의 자기능력지각.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5-241.
- 장영숙, 강경석, 허은진 (200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미래유아학회지*, 10(2), 61-83.
- 장준희 (2006).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 언어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안나 (2008). 유아의 사회적 능력,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희 (2008). 교사-유아간 상호작용과 유아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지선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부적응행동.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3). 2013년 8월 16일 검색.
- 허정묵 (2005).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정서조절력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기영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 아동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혜정, 김경희 (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5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te, J. E., & Pettit, G. S. (2007). Temperament, Parenting, and Socialization. In Grusec J. & Hastings P.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pp. 153-177). New York : Guilford.
-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 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ambell, J. J. (1995). Familial antecedents to children's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3(10-B), 4940.
- Chang, L., Schwartz, D., Dodge, K.,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onway, A. (2005). Girls,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334-339.
-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 : com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Fagan, J. (1990). The intervention between child's sex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behavior problem of preschool-age child in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9, 2-12.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Basic Book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 Bantam Books.
- Gordon, T. (1975). P.E.T :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 장영숙, 강경석, 허은진 (200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미래유아학회지*, 10(2), 61-83.
- Gottman, J. M., Hooven, C., & Katz, L. F. (1994). *The family as a meta-emotion culture. Cognition and Emotion*, New York : Spring.
- Gumperz, J. C. (1973). *Social control and socialization*, London & Boston : R.K.P.
- Haring, N., & Phillips, E. (1962). *Education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New York : McGraw-Hill. In 김인숙 (2003). **한부모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Hewett, F. M. (1971).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in the classroom*. Boston : Allyn and Bacon. In 강민정 (1997).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유치원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oot, H. M., Van Den Oord E. J. C. G., Verhulst, F. C., Boomsma, D. I. (1997).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in Young Preschoolers : Cross-cultural testing of the validity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3), 183-196.
- Lapouse, R., & Monk, M. A. (1958). An epidemiologic study of behavior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48(9), 1134-1144.

- Lerner, R. M. (1998).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Damon, W. & Lerner, R. M.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1-24). New York : Wiley & Sons.
- Martin, J. A. (198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sequences of early mother-child interaction : A microanalytic approa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the Care*, 46(3), 56-68.
- Martinez, M. A. (1987). Dialogues among children and betwe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8(4), 1035-1043.
- Perry, J. L., & Bussy, K. (1984).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eterson, D. R. (1961). Behavior problem of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3), 205-209. In 김인숙 (2003). **한부모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Peterson, G. W., & Rollins, B. C.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Sussman, M. B., & Steinmetz, S. K.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471-505). New York : Plenum.
- Reinbert, H. R. (1976). Children in conflict. Saint Louis : The C. V. Mosby Company. In 김인숙 (2003). **한부모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 Basic Books.
- Santrock, J. W. (2001). *Child development (9th ed)*. New York : McGraw-Hill.
- Slee, P. T. (1986).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other fac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17, 104-112.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16*, 41-81.
- Stocker, C. (2000, March). Adolescent'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 Links with family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Poster presented at the Eighth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RA), Chicago IL.
- Telford, C. W., & Sawrey, J. M. (1972). *The exception individual* (2nd de.), Englewood, New Jersey : Prentice-Hall.
- Therndike, R. L., & Stein, S. (1937). An evaluation of the attempts to measure soci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Bulletin. In 이은숙 (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유형이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Tinsley, B. J., Parke, R. D. (1987). Grandfathers' Behavior with Young infants in the U. S.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ant*, 9, 111.
- Wolfe, D. A., Scott, K., & Werkerle, C. (2001). Child maltreatment : Risk of adjustment problem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eent Psychiatry*, 40(3), 282-289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및 언어통제유형 측정을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유아의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하여 자녀의 행동 특성과 아버님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의 문항들은 맞고 틀리는 답안은 없으니, 평소 자녀 행동 및 아버지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통계 처리를 위하여 한 문항도 빠져서는 안 되며 각 문항마다 한 칸에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4월

연구자 : 조아라

지도교수 : 권연희

기 관 명:

학 급 명:

() ② 첫째() ③ 둘째() ④ 셋째이상()

아내의 연령은?

① : 만 세 ② 아내: 만 세

아내의 학력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②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아내의 직업에 대하여 자세히 적어주세요.

(예- 자영업, 기술직 등)

(예- 전업주부, 파트타임 등)

정의 월 평균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원 미만 ② 100만원~199만원 ③ 200만원~299만원

④ 300만원~399만원 ⑤ 400만원~499만원 ⑥ 500만원이상

1. 자녀의 이름:
2. 자녀의 생년월일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본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
____년 ____월 ____일
3.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4. 자녀수 남 녀
5. 자녀는 몇 번째 아이입니까?
① 외동아() ② 첫째() ③ 둘째() ④ 셋째이상()
6. 응답자와 아내의 연령은?
① 응답자: 만 세 ② 아내: 만 세
7. 응답자와 아내의 학력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응답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② 아 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8. 응답자와 아내의 직업에 대하여 자세히 적어주세요.
① 응답자: (예- 자영업, 기술직 등)
② 아 내: (예- 전업주부, 파트타임 등)
9. 아버님 가정의 월 평균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199만원 ③ 200만원~299만원
④ 300만원~399만원 ⑤ 400만원~499만원 ⑥ 500만원이상

*다음은 자녀 양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총 21가지 상황입니다. 각 상황을 읽어보시고, 아바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를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세요. 만약 제시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셨다면, 제시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생각하시어 표시해주세요. 다음의 보기와 같이 모든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상황의 예시) 이유도 없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피를 부린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	네가 결석하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 하실 텐데.					✓
2	아무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			
3	유치원에 왜 안가? 피부리지 말고 어서가.			✓		

상황1)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뛰어와서 신발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듯이 놓고 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	자기 신발은 바로 해놓을 수 있어야지					
2	신발이 그게 뭐니? 똑바로 해놓고 와.					
3	네가 신발을 똑바로 해 놓으면 엄마, 아빠가 다시 정리를 안 해도 되잖니!					

상황2) 밖에서 욕(나쁜 말 등)을 배워 와서 욕을 한다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4	어디서 그런 나쁜 욕을 배웠어. 다시 또 그런 욕하면 혼내 줄거야.					
5	욕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거야.					
6	네가 욕하고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빠 흉보겠다.					

상황3) 이유도 없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피를 부린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7	네가 결석하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하실 텐데.					
8	아무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9	유치원(어린이집)에 왜 안가? 피 부리지 말고 어서가!					

상황4)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아이가 손님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0	너 혼날 줄 알아.					
11	너 왜 손님 앞에서 철없이 그러니? 의젓해야지!					
12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손님이 흥보겠다.					

상황5)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밥상에 앉는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3	아휴! 저 더러운 손. 빨리 씻고와!					
14	손이 더러운데 네 손에 있는 더러운 병균도 같이 먹게 될텐데.					
15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지.					

상황6)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이가 ‘싫어’하고 대답하였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6	아빠가 말하는데 ‘싫어’가 뭐야! 아빠가 하라면 해야지.					
17	잔소리 말고 빨리 갔다와. 안 가면 혼낼 거야.					
18	싫더라도 아빠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상황7)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19	인사를 잘해야 착한 사람이지!					
20	너 인사할 줄 몰라? 어서 인사해.					
21	네가 인사를 드리지 않아서 서운해 하시겠다.					

상황8) 아버지께서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아이의 주머니 속에 사주지
않은 장난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22	네가 몰래 그러다니, 아빠는 무척 속상해!					
23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허락을 받고 사야하지!					
24	도둑놈 되고 싶어서 그래?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난다.					

상황9) 아이가 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엇질러서 상이 온통 국으로 덮여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25	식사 할 때는 조심해서 먹어야지!					
26	또 쏟았어? 너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어떡할래?					
27	다른 식구들이 먹을 국을 다 엇질러서 어떡하니?					

상황10) 아버지께서 급히 외출할 일이 있어 나가려 하는데 아이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28	애가 왜 그러니? 빨리 나가서 놀지 못해!					
29	너 혼자서도 잘 놀아야 착한 아이지.					
30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보면 털 심심할 것 같은데.					

상황11) 아이가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31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 다시는 하지마!					
32	만약에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너도 기분 나쁘지 않겠니?					
33	거짓말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상황12)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방안을 온통 어질러 놓은 채 그냥 나갈려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34	네 방을 보니 아빠가 너무 어지러워 정신이 없구나.					
35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잘 치워야지.					
36	방안이 이게 무슨 난리니? 빨리 치워!					

상황13)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계속 텔레비전을 더 보겠다고
조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37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38	어서 자거라 하며, TV를 끈다.					
39	늦게 자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유치원(어린이집)에 늦을텐데.					

상황14) 아이가 집에서 형제(동생, 누나, 형)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40	또 싸우니? 그만두지 못해!					
41	너희들끼리 싸우는 걸 보니 아빠가 무척 속상하구나, 싸우고 나니까 너도 마음이 편치 않지?					
42	형제끼리는 서로 의 종계 지내야지 (형이 동생을 때리면 되겠니?/ 동생이 형한테 대들면 되겠니?)					

상황15) 아이가 친구 집에 다녀와서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또는 신발, 옷 등)을 부러워하면서 사달라고 조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43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					
44	네가 자꾸 그러면 아빠 마음도 속상하단다.					
45	계속 조르면 야단맞는다.					

상황16)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싸워서 다른 아이에게 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46	너는 바보같이 맞고만 다니니? 다시는 맞고 오지마!					
47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는건 나빠.					
48	많이 아프겠구나, 어서 씻고 약 바르자.					

상황17) 아버지께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으신데 아이가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떠들며 논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49	아빠가 하는 이야기 안 들리니?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50	계속 그러면 친구들 못 오게 할 거야.					
51	아빠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구나.					

상황18)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는 밥 먹는것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이나 TV보기 등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놀이만 계속하고, 밥 먹으라고 아버지께서 부르시지만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52	빨리 안와? 어서 와서 밥 먹어!					
53	내가 빨리 안 오면 식구들이 기다리잖아.					
54	아무리 재미있어도 식사 시간엔 밥을 먹어야지.					

상황19) 아버지께서 글자나 숫자 등을 아이에게 가르쳐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하기 싫다면서 다른 놀잇감만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55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잘 보고 써봐.					
56	아빠가 가르쳐 주면 잘 보고 배워야지!					
57	이것을 알아야 동화책도 읽을 수 있고, 숫자도 셀 수 있어서 다른 것도 알 수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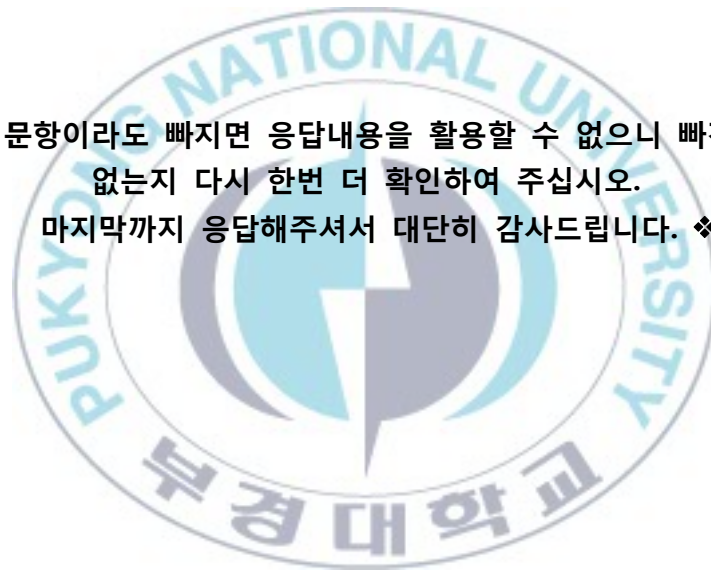
상황20) 만약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안 지켜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58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59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선생님 마음이 상하셨겠구나!					
60	너는 왜 약속도 못 지키니? 다시 또 그러면 아빠한테도 혼난다.					

상황21) 아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서 아무데나 두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 항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61	넌 손이 없니? 빨리 치워!					
62	옷을 제대로 잘 벗어서 걸어 놓아야지.					
63	네가 잘 벗어서 걸어 놓으면 엄마, 아빠가 다시 정리를 안 해도 되잖니?					

❖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응답내용을 활용할 수 없으니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유아의 부적응 행동 측정을 위한 교사용평정도구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 현장에서 언제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유아의 평소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느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조사에 쓰여진 선생님의 의견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본 설문자료는 유아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 이므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연 구 자 : 조아라

지도교수 : 권연희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관찰 유아명	(남, 여)		
유아의 생년월	20 년 월		
기관명	유치원 어린이집	학급명	반
기관유형	유치원	①단설 유치원 ②병설 유치원 ③사립 유치원 ④국공립 어린이집 ⑤법인(재단/사회복지/종교단체) ⑥민간 어린이집 ⑦직장 어린이집	
선생님의 학력	①3(2)년제 대학 졸 ②4년제 대학교 졸 ③대학원 졸 ④고졸 ⑤기타()		
총 교육 경력	①만 1년 미만 ②1년 이상~3년 미만 ③3년 이상~5년 미만 ④5년 이상~10년 미만 ⑤10년 이상		
선생님의 연령	만 세		

* 다음의 질문들은 **유아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염두에 두고 질문에 응하기로 한 유아의 행동에 관해 답해주십시오. 유아에 대해 평소 관찰하시고 느끼신 그대로에 근거해서 아래 보기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반반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쉽게 얼굴이 빨개진다.	1	2	3	4	5
2	평소 긴장되어 있다.	1	2	3	4	5
3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다.	1	2	3	4	5
4	언제나 걱정이 많다.	1	2	3	4	5
5	표정이 밝지 못하다.	1	2	3	4	5
6	새로운 상황이나 놀잇감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1	2	3	4	5
7	자주 우는 편이다.	1	2	3	4	5
8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9	집단 활동에서 쉽게 위축된다.	1	2	3	4	5
10	쉽게 당황한다.	1	2	3	4	5
11	감정들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1	2	3	4	5
12	수줍고 소심한 편이다.	1	2	3	4	5
13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14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15	비활동적이고 동작이 느리며 힘이 없어 보인다.	1	2	3	4	5
16	친구들에게 놀림을 잘 당한다.	1	2	3	4	5
17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1	2	3	4	5
18	쉽게 산만해진다.	1	2	3	4	5
19	처벌이나 보상에 의해서도 주의집중 시간이 길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20	엉뚱한 혹은 무책임한 행동을 종종 보인다.	1	2	3	4	5
21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1	2	3	4	5
22	한 가지 활동에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5
23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	1	2	3	4	5
24	장난을 잘 치고 잡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1	2	3	4	5
26	다른 유아에게 짓궂은 장난을 한다. (약을 올린다.)	1	2	3	4	5
27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29	다른 유아들의 장난감을 부순다. (망가뜨린다.)	1	2	3	4	5
30	다른 유아들에게 나쁜 말과 욕을 한다.	1	2	3	4	5
31	다른 유아들을 차고,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공격을 가한다.	1	2	3	4	5
32	싸움을 잘하고 말다툼이 잦은 편이다.	1	2	3	4	5
33	충동적이다.	1	2	3	4	5
34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1	2	3	4	5
35	폭발하는 듯이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한다.	1	2	3	4	5
36	쉽게 혹은 지나치게 흥분한다.	1	2	3	4	5
37	쉽게 화를 내고 잘 참지 못한다.	1	2	3	4	5

*다음은 **유아의 정서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아가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해당 번호에 ✓표를 해주세요. 선생님의 생각이 확실하지 않을 지라도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해냈을 때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한다.	1	2	3	4	5	6
2	걱정스러울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1	2	3	4	5	6
3	심심할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1	2	3	4	5	6
4	즐거울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1	2	3	4	5	6
5	부끄러울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1	2	3	4	5	6
6	흥분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1	2	3	4	5	6
7	선생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이해하고 따른다.	1	2	3	4	5	6
8	게임에서 졌을 때 화내지 않고 수용한다.	1	2	3	4	5	6
9	게임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시켜주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10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1	2	3	4	5	6
11	놀이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혼자 놀게 되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1	2	3	4	5	6
12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1	2	3	4	5	6
13	화가 났을 때 참을 줄 안다.	1	2	3	4	5	6
14	하던 일이 잘 안되거나 실패해도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1	2	3	4	5	6
15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자기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규칙을 잘 지킨다.	1	2	3	4	5	6
16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잘 안다.	1	2	3	4	5	6
17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잘 안다.	1	2	3	4	5	6
18	친구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안타까워한다.	1	2	3	4	5	6
19	친구가 다른 아이에게 장난감을 빼앗겼을 때 속상해 한다.	1	2	3	4	5	6
20	애를 쓰고 있는 친구를 보면 안타까워한다.	1	2	3	4	5	6
21	어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	1	2	3	4	5	6
22	친구가 아플 때 걱정해 준다.	1	2	3	4	5	6
23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잘 한다.	1	2	3	4	5	6
24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아이에게 친밀감 있게 접근한다.	1	2	3	4	5	6
25	다른 친구를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에 참여시킬 줄 안다.	1	2	3	4	5	6

26	밖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잘 한다.	1	2	3	4	5	6
27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안다.	1	2	3	4	5	6
28	선생님이 화가 나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줄 안다.	1	2	3	4	5	6
29	친한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위로할 줄 안다.	1	2	3	4	5	6
30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선생님이 지적했을 때 이를 잘 받아 들인다.	1	2	3	4	5	6
31	주변이 소란해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한다.	1	2	3	4	5	6

❖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응답내용을 활용할 수 없으니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